

널뛰기 장세에 안정형 개미들 ‘고배당 ETF·은행주’ 향한다

전통적 고배당 ‘은행주’ 관심 쏠려
실적 뒷받침된 주주환원주 재조명
KB금융 최대실적 내고 환원율 52%

코스피·코스닥이 하루이틀 만에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V자 장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 국면에서 배당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같은 주에 발동할 정도로 시장이 요동치자 고배당 ETF와 은행주 등 현금흐름이 기대되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2~3월로 늦추는 이른바 ‘벚꽃 배당’이 늘어나는 점도 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주주환원 강화 흐름 속에서 은행주와 고배당 ETF 등 배당 자산으로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전통적인 고배당 섹터로 꼽히는 은행주에서 먼저 두드러진다. K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5조8429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총주주환원율은 52.4%에 달했다. CET 1 비율 13% 초과분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민 배당주’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실적 기반이 뒷받침된 주주환원 강화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

인터뷰 남용수 한투운용 ETF본부장

“지수보다 자금 흐름 살펴야
단기 불장 아닌 구조적 장세”

코스피가 단기간에 5000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시장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지수 급등에 따른 과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ETF 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운용사 시각은 다르다. 남용수 한국투자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지금 시장은 단기 불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금이 붙는 장”이라며 “지수 레벨보다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AI·반도체로 쏠린 자금…과열 아닌 ‘구조적 선택’

남 본부장은 최근 증시 상승을 단순한 기대감에 따른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글로벌 경제는 이미 K자형 구조로 고착화됐고, 그 중심에 AI가 있다”며 “AI 관련 산업으로의 자금 쏠림은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두 종목이 지수 상승을 설명하는 비중이 커졌는데, 이는 AI 밸류체인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며 “AI



남용수 한국투자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이 메트로경제와 만나 인터뷰 중이다. /한국투자자산운용

투자가 이어지는 한 반도체 중심의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기대’보다 ‘실적과 구조’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HBM뿐 아니라 D램 가격까지 오르며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마진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매출 컨센서스도 계속 상향되고 있다”며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출발선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급등 이후 피로감에 따른 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추세를 꺾는 하락이라기보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스텝업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ETF 400조는 통과 지점…AI에서 전력으로 확장되는 투자 축

ETF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전망을 내놨다. 남 본부장은 “ETF 400조원은 이미 의미 있는 저항선이 아니다”라며 “연금자금 구조 변화까지 감안하면 500조원도 3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는 연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그는 “연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면서 위험자산 비중이 늘고 있다”며 “그 안에서 펀드에서 ETF로 이동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축으로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에너지 인프라로 확장되는 흐름을 제시했다. 남 본부장은 “AI의 수혜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반도체”라며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을 대표 종목 중심으로 담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와 같은 구조가 현 국면과 잘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반도체 다음 단계로는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연료기업을 담은 ACE 미국SMR원자력TOP 10 ETF처럼 전력 인프라를 겨냥한 상품도 AI 시대의 보조 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고객 친화 언어 가이드 제작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커뮤니케이션 혁신 나서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미래에셋증권 고객중심 언어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혁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가이드는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고객 관점에서 재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글쓰기 핵심원칙 편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문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고객관점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을 고객 소통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사무적이고 딱딱한 표현에서 벗어나,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고객 친화적 문장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금 직거래, 보이스포싱 자금세탁통로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값 상승세를 틈탄 보이스포싱 조직이 온라인 금 직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에 나서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을 판매했을 뿐인데도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될 경우 판매자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개인 간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포싱 자금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서 11월 13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1월에도 11건이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 판매자를 물색한 뒤, 별다른 가격 협상 없이 “거액을 한 번에 사겠다”며 빠른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후 보이스포싱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피해금을 금 판매자 계좌로 입금시키고, 현장에서는 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 직거래를 약속한 뒤 예약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입금받고 금을 인도했지만, 해당 자금이 보이스포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동결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판매자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제한, 거래대금 반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대응 요령으로 ▲거래 전 계좌번호 공유 금지 ▲플랫폼 안전결제 수단 이용 ▲거래내역 없는 신규 계좌의 거래 주의 ▲계시글 삭제 요구 시 사기 의심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 이용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뿐 아니라 은, 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자산의 개인 간 직거래도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며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관련 계시글 모니터링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주식보상 전용 플랫폼

삼성증권은 주식보상 전용 플랫폼 ‘삼성증권 AT WORK’를 통해 업계 최초로 RSA(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지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RSA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성과보상 제도다. 현금 보너스와 달리 임직원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성과에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된 주

식 기반 보상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원 및 핵심 인재 보상 수단으로 이미 보편화돼 있다.

RSA는 일정 기간 재직 또는 성과 달성 이후 주식을 지급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와 달리,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성과에 따라 보상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RSA는 주식 지급 시점부터 임직원이 회사의 성과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된 보상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